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 이달 마련

#. 한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월 300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은행에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해 지원받고, 이후부터는 월 150만원으로 감액해 분할상환하기로 은행과 합의했다.

2021년 금융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 등 유도

저축銀 등 제2금융권 리스크 강화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방안을 이달 내 마련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고, 저축은행·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방안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상황이나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의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2월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는 배당금을 적립하게 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들에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은행은 건전성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여전사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저축은행은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편익을 위해 금융권 지점앱 개발도 추진한다. 최근 지점의 폐쇄가 늘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권 국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상호금융, 우체국 등 모든 대한민국의 지점 채널을 포괄하는 앱을 만들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점정보와 함께 위치정보, 교통정보, 인구정보 등 다양한 정보등이 결합되면 소비자 편의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은 옛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에게 연 10% 이내의 한 자릿수 금리로 내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말한다. 현재 4등급 이하의 차주가 은행의 경우 24%를 차지하는데, 인터넷은행이 21% 수준이다.

이 밖에도 외화보험을 개선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모두 외화(달러,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최근 환차익을 기대하는 소비자들로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권 국장은 "환율은 10년 20년뒤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며 "외화보험의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등을 실시해 중요사항 누락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최대 실적 낸 우리종금, 11년 만에 현금배당

영업이익 687억, 당기순익 629억

주당 10원, 액면가 대비 2% 현금배당

IB업무 확대, 순이자이익·비이자이익 ⬆

우리종합금융이 11년 만에 현금배당에 나선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덕분이다.

우리종금은 3일 지난해 영업이익은 687억원, 당기순이익은 62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 27.6%,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6년 연속 최대실적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주당 10원, 액면가 대비 2%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시가 대비 1.84% 수준이며, 배당성향은 약 13.8%다.

우리종금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산 증대와 금융주관 등 IB업무의 확대로 순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각 44.5%, 2.9% 증가했다"며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결손금이 해소됐고, 배당 수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11년 만에 배당을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득 우리종금 대표

우리종금은 최근 수신, 기업금융 업무 외에도 투자금융(IB), 유가증권 운용 및 중개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채권운용과 투자금융 부문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으로 우리금융그룹 내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시너지를 확대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종금과 우리금융그룹을 믿고 기다려 준 주주들에게 감사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적 상승세가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IR활동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적정 수준의 배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관련 사항은 오는 3월 중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안건 관련 세부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결의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이벤트

'내차정보관리'·'정부지원혜택'

NH농협은행은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NH마이데이터 페스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원뱅크 앱에서 '내차정보관리' 또는 '정부지원혜택'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총 2023명을 추첨해 1등 삼성 갤럭시 북(1명), 2등 LG 무선청소기(2명), 3등 한삼인 홍삼정스틱(20명), 참가상 스타벅스 모바일쿠폰(2000명)을 제공한다.

'내차정보관리' 서비스는 본인 소유의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차량정보(차량원부, 시세 등) 및 운전정보(벌점, 범칙금, 사고내용 등)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지원혜택'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혜택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농협은행 심현섭 데이터사업부장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기념해 '내차정보관리'와 '정부지원혜택'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하나금융, 비금융권 경력 특별채용 실시

그룹 내 7개 관계사 참여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그룹 내 7개 관계사가 참여하는 특별채용 전형 프로젝트 '금융에서 희망을 쏘다! 사다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채용 전형 프로젝트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채용대상은 비금융권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퇴직자, 경력 단절자, 폐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경기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학력, 경력(업종),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역량에 적합한 직무에 배치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채용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소비자 중심의 사전 대응 체계인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이 처음 시도하는 이번 특별채용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 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 한다"며 "채용된 직원에게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계속 근무하기 위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여 회사와 지원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 '리브엠'

신규 가입자 통신비 할인

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데이터도 플렉스(FLEX)! 할인도 플렉스(FLEX)!'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플렉스 LTE 요금제'는 매일 5GB씩 월 150GB의 LTE 데이터를 제공한다. 일 제공 데이터 소진 시에도 HD급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5Mbps 속도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요금은 월 3만9800원이며, 통화 및 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대상은 '플렉스 LTE 요금제'를 신규 개통한 고객이다. 가입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24개월간 통신요금 월 1만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카러플 고객에 아이템 드려요"

새해 이벤트 풍성

신한은행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신한 쏠(SOL) X 카러플(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설날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를 즐기는 신한 쏠(SOL)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만5100명에게 고급카트 페인트 외 4종을 받을 수 있는 무지개상자(100명) 등의 아이템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특히 아이템 쿠폰을 게임 내에서 등록하기만 하면 맥북 프로, 아이폰12 프로, 아이패드 프로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신한 쏠에서는 새해를 맞아 이루고 싶은 소원을 입출금 계좌 별명으로 설정하면 소원 응원금을, 설 한정판 메시지카드를 활용해 사랑하는 사람 등에게 메시지 송금하면 송금 지원금을

각각 최대 21만원까지 캐시백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입출금 계좌 별명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계좌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벤트 종료일인 15일까지 계좌 별명 설정과 메시지카드 송금을 모두 완료하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쉬운 명절을 보내게 된 고객들이 이번 이벤트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새해 소원 빌기와 메시지카드 송금을 통해 명절 감성을 나누고,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함께 하는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